

他国博物館における自国文化の展示vs自国博物館における他国文化の展示

| | |
|-----|---------------------------------------------------------------------------------|
| 著者 | 鄭 勝謨 |
| 雑誌名 | 国立民族学博物館調査報告 |
| 巻 | 14 |
| ページ | 56-61 |
| 発行年 | 2000-07-24 |
| URL | http://doi.org/10.15021/00002221 |

他国博物館における自国文化の展示vs自国博物館における他国文化の展示

鄭勝謨（地域文化研究所）

序

韓国の博物館を導いてきた元老の一人がいった言葉をあえて思い起こさなくても、文化財は、我々が子孫のためにそれ自体を守るものであり、添削をしたり、新造をすれば、すべての人が同意していることと信じる。復元も厳密に言えば、そして文化財管理の側面からみれば、本来の任務に忠実な行為ではないだろう。このような大原則が守られるのが大変なとき、文化財は自分がいた場所から移動し、博物館の世話になる。その博物館が国籍を違える場合もあるが、その一つがまさにこの博物館のケースである。

日本における朝鮮文化財の展示に対しては、二つの方法を選択することができる。それは本物を展示する方法と、複製品、あるいは模造品を展示する方法である。しかし、この二つのうち、どちらも文化財管理の次元からは満足できるものではない。このような悩みが今回装いを新たにした朝鮮展示にも現れているようである。

展示遺物に対して

博物館が収蔵庫に入ってきた文化財を守る機能から一步出ていったものが展示機能である。展示を通して子孫は以前に生きていた人々の姿をうかがうことができる。文化財をもともとの状態で維持する環境条件で文化財と子孫が展示場で出会うことになる。このとき、避けられない場合をのぞいては、本物を陳列することが原則である。単純に本物を保護するために複製品をつくることは、博物館が自ら偽物を作り出す行為をすることと同じである。

国立民族学博物館（以下、民博とする）が他国の文化財を収集するうえで、多くの困難を経ており、それが進むほど徐々に難しくなる点に対し、そしてこのような困難のなかでも、よい展示品を収集した点に対して讃辞を送らざるをえないが、今回の展示の場合は、とくに「他国博物館における自国文化の展示」をみる立場からは、その方法に対して、そしてそれ以前の展示方法などに対する展示対象民族、あるいは国家の協調または相互理解の努力があったのか気にかかる。とくに生活品展示の

他國博物館에서의 自國文化展示 vs 自國博物館에서의 他國文化展示

鄭勝謨(地域文化研究所)

序

한국의 박물관을 이끌어 온 원로 한 분의 말을 굳이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文化財는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이지 添削을 하거나 新造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모두들 동의하리라고 믿는다. 복원도 엄밀히 말하면 문화재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행위는 아닌 것이다. 이러한 대 원칙이 지켜지기 힘들 때 문화재는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이동하여 박물관의 신세를 지게 된다. 그 박물관이 국적을 달리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그 하나가 바로 이 박물관의 경우다.

일본에서의 조선 문화재 전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眞品을 전시하는 것과 複製品 또는 模造品을 전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문화재관리 차원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러한 고민이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조선 전시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 같다.

展示遺物에 對하여

박물관이 收藏庫로 들어온 문화재를 지키는 기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전시 기능이다. 전시를 통해서 후손들은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문화재를 원래의 상태로 유지하는 환경 조건에서 문화재와 후손들이 전시장에서 만나게 된다. 이럴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품을 진열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단순히 진품을 보호하기 위해 복제품을 만드는 것은 박물관이 스스로 가짜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國立民族學博物館(이하 민博이라고 함)이 타국의 문화재를 수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전시품들을 수집한 점에 대해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데 이번 전시의 경우는 특히 '他國博物館에서의 自國文化展示'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 그리고 그 이전에 전시 방향 등에 대한 전시대상 민족 혹은 국가의 협조 또는 상호이해의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정상하다. 특히 생활품 전시의 경우는 국가차원에서 관리하

場合は、国家次元から管理する文化財とは違った条件で、すなわち比較的簡単に良質の遺物が博物館の展示対象にならなかったのかと思われる。たとえばここに展示されている「喪輿」がこれに該当するだろう。しかし、それより収集するうえでさらに簡単な展示物、とくに工芸品に該当するもののなかでは、まさに自民族中心主義 (Ethnocentrism) や愛国的な発想からではなくても心苦しさを感ずることを率直に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以上の所見は民博の展示方向を十分に理解できていないことに原因があるからかもしれない。

その結果として発生したもっとも大きな問題は多くの展示品の色感、図像、技法、材質などが韓国伝統のイメージや雰囲気や伝達するのに十分でない点があげられる。たとえば、(檀君)肖像画、平生図、巫神図など。

展示品目のなかには韓国の典型、あるいは代表性を表出するのに十分でない点があることも惜しいことである。たとえば、(済州島)民家、(チャンスンと同じに立っている)ソッテ、(儀礼)服飾など。

とても限定された展示空間ではあるが、かならず展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品目もある。たとえば、(儒教文化としての)典籍、(展示テーマと関連した)古文書、石造物など。

展示空間と展示テーマについて

民博の朝鮮展示は、「歴史と文化」「食生活」「衣生活」「住生活」「芸能」などの弁別力があるテーマを相互、あるいはそのほか異なったテーマと互いに絶妙につながり、限定された展示空間を十分に活用している。たとえば、生産用具を食生活とつなげて、儀礼演出を通して衣生活をみせている。また、このようなつながりは、長い壁を利用した「歴史と文化」展示テーマとも無関係ではない。たとえば、生産用具と民俗工芸、人生儀礼と儒教文化がそれぞれ並行して展示されていることなど。

しかし、一歩進めて巫俗、仏教、儒教、キリスト教などの4つのテーマで歴史、すなわち時代的な流れを表現しようとする意図は理解できるが、むしろ混乱だけを招いたのではないと思われる。19世紀以降を基準としたとすれば、このテーマは同時代的であるためである。展示遺物でいえば、檀君肖像画を含めて、展示遺物がみせてくれる図像は大部分が20世紀以前にさかのぼることはできない。

それゆえ、展示空間で表現しようとした民博側の意図が観覧者たちに、そのまま伝わったのか疑問である。

는 문화재와는 다른 조건에서, 즉 비교적 쉽게 양질의 유물들이 박물관의 전시대상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예를 들면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喪輿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수집하기에 더 쉬웠을 전시물들, 특히 工藝品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는 꼭 自民族中心主義(Ethnocentrism)나 愛國的인 發想에서가 아니더라도 憫憫함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음을 솔직히 말해야겠다. 그러나 以上の 所見은 民博의 전시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 지도 모르겠다.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전시품들의 色感, 圖象, 技法, 材質 등이 韓國 傳統의 image나 雰圍氣를 傳達하는데는 滿足스럽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檀君)肖像畫, 平生圖, 巫神圖 등.

전시품목 중에는 韓國文化의 典型, 또는 代表性을 나타내기에 未洽한 점이 있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예를 들면 (濟州道)民家, (장승과 같이 서 있는) 솟대, (儀禮)服飾 등.

매우 한정된 전시공간이기는 하나 꼭 전시되었으면 하는 품목들도 있다. 예를 들면 (儒敎文化로서의) 典籍, (전시주제와 관련된) 古文書, 石物 등.

展示空間과 展示主題에 대하여

민박의 조선 전시는 「歷史と文化」 「食生活」 「衣生活」 「住生活」 「藝能」 등의 辨別力이 있는 主題들을 상호 또는 기타 다른 주제들과 서로 절묘하게 연결하여 限定된 전시공간을 十分 活用하고 있다. 예를 들면 生産用具를 食生活와 연결하였고, 儀禮 演出을 통해 衣生活를 보여주고 있다. 또 이러한 연결들은 艮 壁을 이용한 「歷史와 文化」 展示主題와도 無關하지 않다. 예를 들면 生産用具와 民俗工藝, 人生儀禮와 儒敎文化가 각기 並行하여 전시되어 있는 것 등.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巫俗, 佛敎, 儒敎, 基督教 등의 4개 주제로 歷史, 즉 시대적 흐름을 표현하고자 한 의도는 이해는 가지만 오히려 混亂만 招來한 것이 아닌가 念慮된다. 19世紀 以後를 基準으로 한다면 이 주제들은 同時代의인 것이기 때문이다. 전시유물로 말하자면 檀君肖像畫를 포함하여 전시유물이 보여주는 圖象들은 대부분이 20世紀 以前으로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전시공간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民博 側의 意圖가 觀覽者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것인지 의문이다.

考證과 관련한 몇가지 問題

考証と関連したいくつかの問題

1. 展示遺物と関連して

- 1-1. 檀君肖像画：最近につくられたということを伝えられる方法は？
- 1-2. ソツテ：チャンスンとは異なる信仰物としての意味を伝達する方法は？
- 1-3. 誌石（墓誌）：墓誌盒、出土地域などを明らかにする問題。

2. 展示演出と関連して

- 2-1. 結婚儀礼演出：男女の位置と方向が持つ意味、および場所、背景（屏風など）など。
- 2-2. クッパン（クッ庁）：巫神図の配置。
- 2-3. 酒幕：客主よりは酒幕の機能をあらわすことができる構造物の補完方法は？

結

以上のように発表者の所見に対して、正しい正しくないは別に、民博側の意見を聞くことは、両国の文化理解の新しい方法の一つになると疑わない。むしろ、そのような集まりが、他国文化に対する民博の展示が依然として世界の頂点にあることを、再三確認させてくれる機会となるだろう。

○ 展示遺物과 關聯하여

- 檀君肖像畫：最近에 만들어진 것임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 솟대：장승과는 다른 信仰物로서의 意味 전달 방법은?
- 誌石(-->墓誌)：墓誌盒, 出土地域 등을 밝히는 문제.

○ 展示演出과 關聯하여

● 醮禮 演出：男女 位置와 方向이 갖는 意味 및 場所, 背景(屏風 등) 등.

- 굿판(-->굿廳)：巫神圖의 配置
- 酒幕：客主보다는 酒幕의 機能을 나타내주는 構造物 補完 방법은?

結

이상과 같은 발표자의 소견에 대해 그 옳고 그른 것을 떠나 民博 側의 意見을 듣는 것은 양국 문화 이해의 새로운 방법의 하나가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 모임이 타국 문화에 대한 民博의 展示는 여전히 世界 頂上에 있음을 또한 재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